



오전 9시  
오전 11시

교회소식

1월의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파송의말씀

축도\*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사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인도자

인도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찬 524)

주만 의지해

그가 오신 이유

예배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찬 214장 4절)

사도행전 27:13-44

너는 내 것이라

“난파선에 전해지는 희망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찬 569)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월의 공동기도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일(2/6)은 **성찬주일**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미리 떡과 잔을 준비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가족기도제목 카드**가 비치되었습니다. 모두 작성하셔서 교역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2/6) 2부 예배 후 2021**결산공동의회**가 있습니다.
6. **현장새벽기도회**는 토요일에만 있습니다. 영상새벽기도회는 Zoom으로 “월~토”에 계속 있습니다.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7.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 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림이 기뻐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월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전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말씀하지 않아도 기도 제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작년과 같이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한울림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도록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예배당으로 달려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길은 미끄럽고, 교회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이면 그냥 편하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특히 코비드시대에는 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예전 생각이 납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에 오던 날에도 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폭설이 쏟아져 미국 교회는 주일예배를 하지 않는 날에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던 주일이 기억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라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코비드시대 이후 그런 현상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소중함, 엄중함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소에 국한 받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제한 받는 것도 아닌 주님만을 의식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엄중함과 소중함을 가짐과 동시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겸비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와 환경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의 편이에 따라 쉽게 내가 장소를 정하고 내가 드리기 쉬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내용만 있는 형식은 오히려 위험할 뿐입니다. 코비드시대일수록, 눈이 온 날일수록,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일수록 현장예배의 소중함을 더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권혁용, 차유미 전도사  
정주애 은퇴전도사

김원재 목사